

11/5(토) 욥기 묵상 48

욥기 38: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세 친구들간의 치열한 변론 그리고 엘리후의 주장이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보다 창조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에 할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을 하는 자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폭풍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현현하실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왕상 19:11-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섰던 호렙산에서 나타난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말과 각종 변론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첫째로 욥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욥이 2절의 주인공이라면 마지막 하나님의 책망과 일치되지 않을 것입니다(욥 42:7,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둘째로 엘리후라는 견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후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후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욥은 자신도 무지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욥 42: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말과 행위도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다음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4-7절). 사실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창조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7절,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말합니다. 욥의 믿음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한 사탄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배반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약 2:18,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지금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고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리를 묶고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점을 강조했습니다(엡 6:11-12,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가 허리를 묶어야 하는 것은 진리로 묶어야 합니다. 즉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받쳐 주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고난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새벽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손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같은 고백을 했습니다(**욥 7:17-18,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존재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네가 대장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일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우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가 욥과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일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는 그것이 비록 우리가 결정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와 상관 없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합니까? 마땅히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의 주장처럼 우리를 일개 종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로 여기시고 또 그의 친구로 불러 주셨습니다(**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대충 신앙 생활을 해서도 안됩니다. 좀 더 진지하고 의미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보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장부로서 주님께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같은 대형 참사가 거듭되지 않도록 올바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콜롬비아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과 5명의 선교위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번 여행에 목적인 바를 주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수행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교회를 위한 기도:**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3부 예배, 영어권 예배, 교회학교 예배.